



## 미 증시, 11 월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9 일(목) 미국 증시는 최근 연이은 상승에 따른 단기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주간 실업지표 서프라이즈를 통한 고용시장 회복세 재확인 및 이로 인한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부담, 10 일(금) 11 월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등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마감(다우 0.0%, S&P500 -0.7%, 나스닥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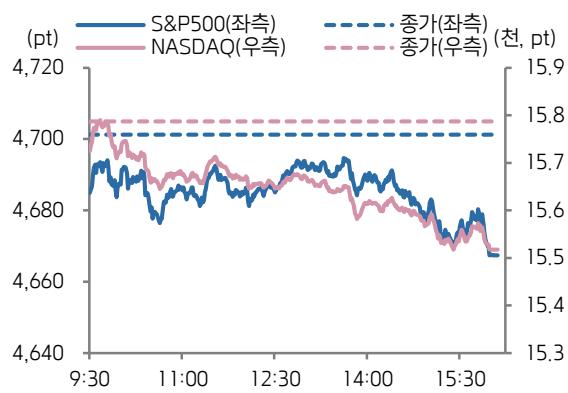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헬스케어(+0.2%), 필수소비재(+0.1%)를 제외한 경기소비재(-1.7%), 부동산(-1.4%), 기술(-1.1%), 에너지(-0.9%) 등 전업종이 약세.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4만건으로 전주(22.7만건) 및 예상치(21.5만건)을 큰 폭 하회하며, 196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 4 주 이동평균 실업수당청구건수도 21.9 만건으로 전주(24.0 만건)에 비해 감소하면서 지난 3월 7일 코로나 판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11 월 소비자물가는 높아질 것이나, 11 월 물가 데이터 수집 후 나타난 휘발유 가격 및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 주간 신규실업청구건수가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역대급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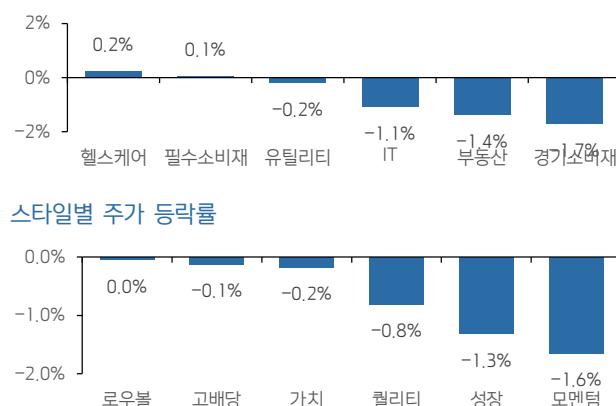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헉다그룹의 신용등급을 기존 "C"에서 제한적인 디폴드(RD)"로 하향. 피치 측은 12 월 6 일까지 헉다그룹이 약 8,250 만달러의 채권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이 하향 조정 배경이라고 밝힘. 한편,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헉다그룹이 채무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홍콩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홍콩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중국 부동산 그룹의 위험이 이들 자본시장을 파괴할 수 없다고 평가. 동시에 헉다그룹 사태는 시장 이벤트로서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67.45	-0.72%	USD/KRW	1,174.03	-0.15%
NASDAQ	15,517.37	-1.71%	달러 지수	96.22	+0.34%
다우	35,754.69	+0%	EUR/USD	1.13	-0.02%
VIX	21.58	+8.44%	USD/CNH	6.38	-0.03%
러셀 2000	2,220.21	-2.27%	USD/JPY	113.47	-0.02%
필라. 반도체	3,879.52	-2.1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327.07	+0.14%	국고채 3년	1.792	-2.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82	+0.2bp
Eurostoxx50	4,208.30	-0.59%	미국 국채 2년	0.688	+0.6bp
MSCI 전세계 지수	748.11	+0.39%	미국 국채 10년	1.499	-2.2bp
MSCI DM 지수	3,196.39	+0.3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41.01	+0.44%	WTI	70.63	-2.39%
MSCI 한국 ETF	80.76	-0.62%	금	1775.6	-0.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8.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국내 장 마감 후 밤시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11 월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2.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헝다그룹의 제한적 디폴트가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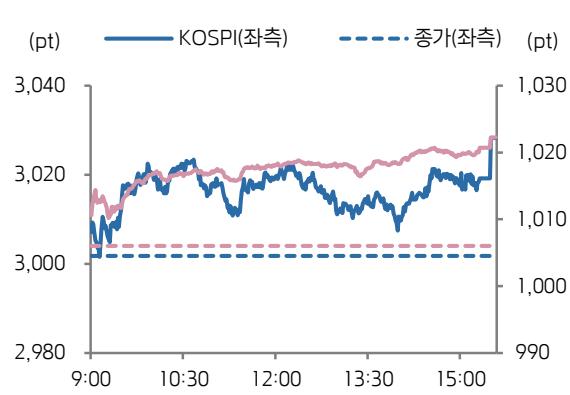
지난 3 일(금) 11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호조에 이어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10 일(목)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1969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확인할 수 있듯이, 11 월 중 기존 델타 변이 대유행 등 부담 요인에도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최근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크게 높은 만큼(도쿄대 추정, 델타 대비 4.2 배),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대면 및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1) 중증이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2) 현존하는 백신을 통해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고, 3) 정부 차원에서도 봉쇄조치 강도를 높일 가능성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오미크론이 미국 고용시장을 기준 회복 경로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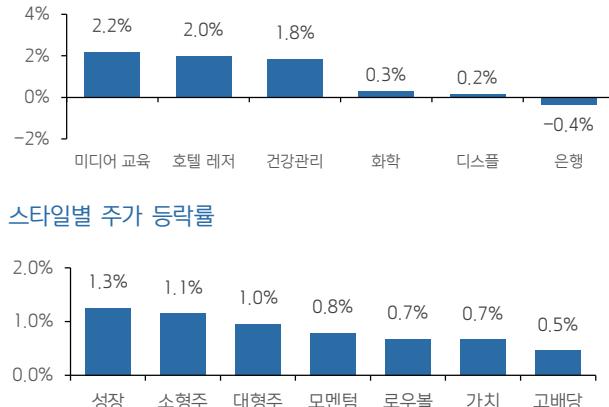
이처럼 미국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12 월 FOMC 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나 시장에서는 12 월 테이퍼링 가속화를 일정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테이퍼링 가속화에 따른 시장 불안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향후 관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로 나올 시,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11 월 소비자물가(예상 6.7%, 이전 6.2%) 결과에 대한 민감도는 10 월 물가지표 발표 당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

금일 국내 증시도 11 월 미국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속 최근 7 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 등이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중국 헝다그룹의 제한적 디폴트 현실화에 따른 중국 증시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나, 이들 그룹의 디폴트는 최근 시장에서 소화해왔던 이슈였음을 감안 시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판단.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b>Compliance Notice</b>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b>고지사항</b>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수합니다.